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노인의 생활문제인지와 생활계획의 분석을 중심으로-

Life planning program for elderly

-Analysis of life problem and life planning of elderly-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홍 성 회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경 회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광 인 숙

충남대학교 소비자·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순 미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 혜 연

여주전문대학 가정과

전임강사 김 성 회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Hong, Su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Joongang University

Professor : Lee, Ky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 Sook

Dept. of Consumer Sciences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 Mi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Hye Yeon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Technical College

Lecturer : Kim, Sung Hee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ntributing factors to elderly's life problem and their life planning. The sample in this study consisted of 556 elderly husband and wives over 55 years old living in Seoul, Daejeon, Jeonju and Daegu. Statistics employ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Elderly's life problem and planning were negatively related in economic and leisure domain. And family relationship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ception of life problem, while home ownership, total income and total asset had not effect on perception of life problem of elderly. Also, family relationship,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had effect on life planning, while total income and total asset had not any effect on life planning of elderly.

These findings pointed that psychological variables as family relationship and self-esteem play a more important role than economic variables in life of elderly.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들을 위한 노후대책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1995년 72.8세로 20년 이상 길어졌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960년 2.9%에서 1995년 5.8%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통계청, 1996)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될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평균수명이 짧아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부재로 오랜 생활지혜와 경험을 갖고있는 노인에게 효사상을 기초로 사회적 존경과 지위를 부여하는 가족부양이 당연시되었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인 부양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았었다.

반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과 생산기술의 변화 및 발전, 전문 교육기관의 출현, 정년제 도입 등은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지위를 약화시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역할상실과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 전반에 걸쳐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기 보다는 가족부양을 기대하거나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세대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가옥 외, 199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5).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세대의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의 규모와 형태의 변화, 여성의 직업진출 등의 요인은 가족의 노인부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기관이 미비하며 주로 가족부양에 의존하고 있어서 노인들은 개별적으로 심각한 생활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문제란 일상생활 및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부양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원이 있으며,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시간, 금전,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네 가지 생활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요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생활영역은 경제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여

가생활영역 및 가사노동영역이며, 이들은 다시 개인, 가정, 나아가 사회의 부양능력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노인의 생활문제란 시간, 금전,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네 가지 생활요소 속에서 개인, 가정, 사회의 부양능력에 의해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문숙재 외, 1996; Deacon & Firebaugh, 1988).

따라서 노인의 각 생활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시간, 금전,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각 생활요소로부터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상태와 부양을 위한 조건 및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부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가족부양이나 사회기관 혹은 시설부양 등 부양형태에 초점을 두거나 어떤 부양형태를 전제로 노인이나 가족원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부담을 다루어 왔다. 뿐만 아니라 노인 생활의 특정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김중숙, 1986; 서병숙, 1986; 성규탁, 1991; Brody, 1985; Motenko, 1989)이어서 노인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제나 노후계획 등 노인생활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는 대처와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 생활의 제영역, 즉 경제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및 가사노동영역에서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문제의 인식 및 계획에 관한 연구는 현재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제의 실태와 노후대비 정도를 파악하게 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부양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복지 수준을 가늠케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부양문제에 대한 재고와 노후계획을 위한

정보가 되며, 개인, 가족 및 사회기관의 부양형태 결정 뿐 아니라 각 부양형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및 질과 관련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생활문제 영역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요소는 시간, 금전, 공간 및 에너지로 노인의 생존유지 및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부양과정은 이러한 네 가지 생활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문제¹⁾는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제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그리고 가사노동영역의 각 생활영역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노인의 생활문제는 대부분 노인 자신이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하기 쉽다. 경제적 자원은 인간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으로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계획 및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노인의 경제생활영역의 어려움은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노인은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와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빈곤 내지 저소득 상태에 있으며, 생활보호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김성순, 198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노인의 경제적 자원 부족은 노후를 대비한 개인의 준비가 미흡한 데에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 범위와 정도가 미약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장인협, 최성재, 1988).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노인을 위한 사회적 공간 부재, 그리고 신체적 노화로 인해 노인의 주생활은 중요한 생활영역이 된다. 노인은 자신의 신체관리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제한되며

1) 노인의 생활문제는 생활요소인 시간, 금전, 공간 및 에너지에 따라 여가활동영역, 경제생활영역, 주생활영역 및 가사노동영역의 순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의 논의는 노인에게 있어서 비중이 큰 생활문제 영역의 순을 따르고자 한다.

로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은 소유해야 하는 일종의 자산으로 인식되며, 노인의 신체적 변화과정에 따라 물리적 변형이 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지혜, 1987). 더우기 노인주거시설과 형태가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강원필, 1989; 고성중, 1990; 윤복자 외, 1990), 우리나라 노인이 선진국과 같이 주생활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시설 혹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주된 활동공간이 가정이라는 것은 주로 가정에서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은 은퇴와 사회적 관계의 위축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므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생활문제로 대두된다(송정선, 1997). 그러나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추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최성재, 1984; Peterson, 1973). 또한 노인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 장소 등이 미비한 실정이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은 가정 내에서 시간소일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박재간·김태현, 1986;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6).

한편 노인의 노동생활은 에너지 생활요소와 관련된 생활영역으로 은퇴 후에는 가사노동으로 구성된다(문숙재, 1989). 노인은 연령이나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가사노동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박충신, 1991; 여윤경, 1993),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혹은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가정 외부의 시설이나 기관에 의존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를 조사한 채옥희(1991)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주부들의 실제 사회화 이용빈도는 낮았지만, 이에 대한 기대도는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이 되면 가사노동의 생활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부양이 아니라 시장이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노인부양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그 질과 더불어 노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주거공간 선택에 따른 주변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의 경제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그리고 가사노동영역은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노년기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생활영역이다.

노인의 생활문제란 이러한 생활영역의 각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초래된다고 보다는 동시적, 상호관련적 혹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 노인의 생활문제 인식

(1) 경제생활영역

노년기에는 사회경제적 역할이 감소됨으로써 심리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수입감소 및 경제적 의존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의 비율이 낮아지고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원조가 주소득원으로 나타나, 민재성 외(1993)의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63.7%였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이 노인단독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가정이 85% 이상이었으며, 50만원 이상은 불과 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소득의 부족은 지출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생애주기별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소비성향이 위축된다(도시가계연보, 1990). 노인 가정과 비노인가정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문숙재 외(1996)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가정은 비노인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및 총지출액이 모두 낮았으며,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액도 낮게 나타남으로써 노인가정이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는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부담, 여가 및 취미활동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하므로(범수인, 1992), 소비생활문제 중 건강 및 의료비문제와 여가선용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며(홍향숙, 1989), 노인 스스로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만족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이가옥 외, 1994; 한국보건연구원, 1992) 경제생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 주생활영역

노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통제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행동 위축현상이 나타나므로(이연숙 외, 1993), 적절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윤현희·김명자(1994)에 따르면 노인들은 상실감, 건강문제, 가족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갑작스런 생활사건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윤가현, 1991).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특성은 범죄로부터의 안전, 도로 및 교통의 편리성, 주택의 소유, 소음 공해로부터의 안전성, 좋은 이웃과의 근접 등으로 이것은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및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김양희 외, 1995).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환경을 노인의 요구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주거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어하므로(Golant, 1982) 주거환경은 노인의 주생활문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가생활영역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여가시간의 선용과 여가활동의 추구는 신체적, 정신적 욕구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노인들이 여가와 관련하여 인식하게 되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박재간(1984), 최성재(1986), Peterson(1973)등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즉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과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이유 이외에 노인은 건강상태로 인해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상태라고 한 이천희(198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지 못했던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세대이므로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방법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서 '하는 일없이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박재간, 1980; 이희범, 1994). 이러한 여가활동능력과 기술의 부족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과 좌절(Gordon et al., 1976)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Atchley(1980)는 청년기부터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보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여가비용, 건강상태, 여가기술 및 경험의 부족 등의 여가문제를 인지함으로써, 실제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사노동영역

노인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생활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의 조사에서는 노인의 30.3%가 가사일, 손자녀돌보기, 집보기 등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임현화(1989)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경우 집안팍 청소는 73.3%, 손자녀 돌보기 및 예절 교육은 43.9%, 식사준비는 29.4%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관리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만(박충선, 1991), 55세 이상이 되면 가사노동의 양, 내용, 수행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70세 이상이 되면 신체적 자립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김태현, 1982; 채옥희, 1991). 따라서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의 가사노동의 수행은 부담이 되거나 거의 불가능해지므로 타인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노인은 각 생활영역에서 여러 생활문

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노인의 생활계획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생활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여 문제해결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계획과 지속적인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Kapoor et al., 1996).

(1) 경제생활영역

노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계획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다른 영역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5.6%가 노후 생활에 관심이 있지만, 경제적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31.0%였는데, 이는 연령이 많고, 소득이 적으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후의 경제적 대비가 적은 것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저축을 할만큼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며, 자녀의 교육, 결혼이나 주택마련에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이기춘 외, 1996). 임정빈 외(1985)에 따르면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계획은 지역, 연령, 소득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2) 주생활영역

노년기에는 심신이 쇠퇴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제한되므로, 노년기의 주택은 심신의 노화에 대처할 수 있고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주거환경(전명숙, 1994)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시설과 주택환경을 선택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주택유형 등을 개인적 특성과 욕구에 따라 개별화하거나(Cavanaugh, 1996), 연령분리적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Dowd, 1975). 이러한 주거에 대한 계획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는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에 더

많이 세우고 있었으며(장은정, 1990),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한 계획에서 연령이 많고, 건강상태가 나쁘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희망하고 있거나 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임대주택이나 노인주거단지 등 시설주거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는데(박경란 외, 1995), 이것은 고소득 노인이 실버타운 내의 노인주거단지를 이용하려는 욕구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계획은 연령이나 건강상태, 가족형태, 경제력 등과 관련된 개인적 욕구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가생활영역

최근 인간 생활에서 노동, 일의 역할보다는 생활의 질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여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어서 여가활동의 욕구나 동기,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와는 달리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므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태현, 1994). 즉 은퇴 이전에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은퇴 후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예측되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성이 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선미, 1991)을 볼 때,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를 발달시키는 것이 어렵고, 초·중년기부터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경험과 노후여가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이 되어 어떠한 여가생활을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소득,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은영(1981)은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장애요인이 여가의식이나 욕구의 결여가 아니라 용돈의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는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여가활동의 계획을 저해할 만큼 낮은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활동이 활발하다는 박재간(1984)의 연구결과와는 교육을 통해 여

가시간활용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따라서 여가활동 계획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가사노동영역

노인이 되더라도 가사노동은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체적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담당하게 된다. 가사노동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노인의 가사노동은 지금까지 생활계획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노인의 가사노동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노인의 부양형태에 따라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부모를 부양할 자녀의 수 감소, 노인부양의 주된 책임자였던 성인여성의 사회진출(홍숙자, 1995) 등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사설 전문시설이나 기관의 설립은 공적 부양에 의한 가사노동 해결이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소득에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려는 개인부양을 선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5) 가사노동은 점차 개인의 계획이 필요한 생활영역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부모는 성장한 자녀가 노후에 자신을 부양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노후를 대비한 생활계획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보다는 가족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 내지 심화되는 현상(임춘희, 1987; 홍숙자, 1995)에서 알 수 있듯이 점차 노인의 생활문제를 가족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해결하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노인부양은 가족원의 심리적 갈등,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Brody, 1985; Motenko, 1989)이며, 노인소외 및 고립감, 비인간화와 노인 자신들의 부양욕구 등으로 인해 공적 부양지원 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홍숙자, 1995; Streib & Beck, 1980).

그러므로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가족상황, 경제적 자립 정도 등에 따라 자기자신, 가족 혹은 사회기관 중에서 생활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노후 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인지도가 노후의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노인의 생활문제인지 및 노후생활계획의 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문제인지 및 노후계획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문제인지 및 각 영역의 생활문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제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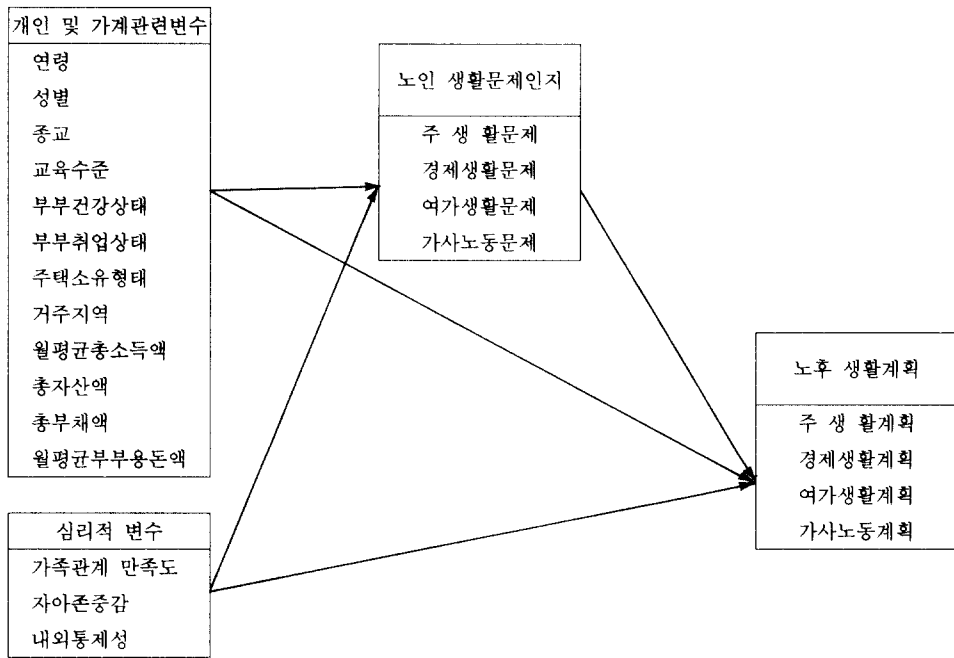
셋째, 노년기의 전반적인 노후생활계획과 각 영역의 노후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문제, 그리고 제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성향 문항과, 노인부부의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재정관련 문항등의 가계관련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노후생활계획은 주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에 대한 계획수립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년기 생활문제인지는 가정생활의 각



〈그림 1〉 연구모형

영역에서 평소 인지하는 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 중 가족관계만족도는 노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부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가족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의의를 갖고,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환경인지 및 환경에 대한 수행과 만족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노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인지와 생활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강상태는 노화를 겪고있는 노인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의미하며 생활에의 적응력을 제공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노인이 경험하는 생활문제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경제력과 관련된 취업상태, 월평균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월평균용돈액 등을 가계관련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

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 대전, 전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5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연령,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표집이 이루어졌다. 조사는 1996년 12월 2일부터 1997년 1월 17일에 걸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서울에 360명, 대전, 전주 및 대구에 각각 120명 등 총 72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및 훈련된 조사가원이 직접 면접에 의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556부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6.04)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u>노후생활계획</u> 주생활계획(1) 경제생활계획(1) 여가생활계획(1) 가사노동계획(1)	주생활계획+ 경제생활계획+ 여가생활계획+ 가사노동계획 1= 전혀 계획이 없다 3=그저 그렇다 5=계획이 잘 되어 있다 1= 전혀 계획이 없다 3=그저 그렇다 5=계획이 잘 되어 있다 1= 전혀 계획이 없다 3=그저 그렇다 5=계획이 잘 되어 있다 1= 전혀 계획이 없다 3=그저 그렇다 5=계획이 잘 되어 있다
<u>생활문제인지</u> 주생활문제(8) 경제생활문제(6) 여가생활문제(10) 가사노동문제(7)	주생활문제인지+ 경제생활문제인지+ 여가생활문제인지+ 가사노동문제인지 1=문제가 매우 많다 3=그저 그렇다 5=문제가 전혀 없다 1=문제가 매우 많다 3=그저 그렇다 5=문제가 전혀 없다 1=문제가 매우 많다 3=그저 그렇다 5=문제가 전혀 없다 1=문제가 매우 많다 3=그저 그렇다 5=문제가 전혀 없다
<u>개인 및 가계관련변수</u> 연 령 성 별 종 교 교육수준 부부의 건강상태 부부의 취업상태 주택소유형태 거주지역 월평균총소득액 총자산액 총부채액 부부용돈액 <u>심리적 변수</u> 가족관계만족도(5) 자아존중감(3) 내외통제성(4)	조사대상자의 연령 조사대상자의 성별 1=남 0=여 조사대상자의 종교 1=유 0=무 조사대상자의 교육년수(년) 노인부부중 건강이 더 나쁜 배우자의 건강상태 1=매우 나쁘다 3=보통이다 5=매우 좋다 부부 모두 무직(TYJOB1) 1=해당 0=비해당 부부중 1인취업(TYJOB2) 1=해당 0=비해당 부부 모두 취업(TYJOB3) 1=해당 0=비해당 1=본인 및 배우자 소유 0=가족원소유 또는 기타 1=서울 0=기타(대전, 대구, 전주) 조사대상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액(원) 조사대상가계의 총자산액(원) 조사대상가계의 총부채액(원) 노인부부의 월평균 용돈액(원)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인지도 1=매우 나쁘다 3=보통이다 5=매우 좋다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 1=매우 낮다 3=보통이다 5=매우 높다 조사대상자의 통제성향 1=내통제성 3=중간 5=외통제성

* ()은 문항수를 의미함.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가계관련변수, 심리적 변수, 생활문제 인지수준 및 노후생활계획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생활문제인지수준과 노후생활계

획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생활문제인지수준과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

된 변수들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5 수준 미만에서 유의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49.8%, 여자 50.2%였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6.28세, 교육수준은 9.06년이었다. 부부의 취업상태는 부부 중 한사람만이 취업한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가 39.7%, 부부 모두 취업한 경우는 14.1%에 불과하

였다. 주택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로된 경우가 70%로 나타났다. 부부 중 건강이 나쁜 사람의 건강상태는 2.89로 건강이 약간 나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가정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월평균 총소득, 부부 용돈, 그리고 가계의 총자산 상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총소득은 140.1만원이었으며, 이 중 부부의 월평균 용돈은 42.7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한 총자산은 2.36억원 정도였으며, 총부채는 781만원 이었다. 노인들은 가족원과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높게 인지하였다. 또한 노인의 내외통제 정도는 중간 수준을 보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556)

범 주 형 변 수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277	49.8
여	279	50.2
종 교		
유	426	76.6
무	130	23.4
부부의 취업상태		
부부 모두 무직	141	39.7
부부 중 1인 취업	164	46.2
부부 모두 취업	50	14.1
주택소유형태		
본인 및 배우자	389	70.0
기타	167	30.0
지 역		
서울	234	42.1
기타	322	57.9
연 속 형 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연령(세)	66.28	8.68
교육수준(년)	9.06	5.55
부부의 건강상태(1-5점)	2.89	0.93
월평균총소득액(만원)	140.11	151.86
총자산액(만원)	23567.41	43164.36
총부채액(만원)	781	3962.47
부부 용돈액(천원/월)	42.69	55.6
가족관계만족도(1-5점)	3.45	0.58
자아존중감(1-5점)	3.19	0.80
내외통제성(1-5점)	3.03	0.64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2. 노인의 생활문제인지도 및 노후생활계획 실태

노인 가정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가정생활 영역별 문제인지도 및 노후계획의 정도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가정생활 영역 중 문제인지도의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주생활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생활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계대책이며, 그 다음이 주택문제라고 한 박재간(1979)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노후계획의 정도는 여가, 경제 및 가사노동의 영역의 순으로 낮아졌으며, 주택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생활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의 정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후계획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노후계획의 정도는 모든 영역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문제인지의 경우에는 여가생활, 가사노동의 영역이 주생활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생활과 가사노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가 힘들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생활에 비해 문제인지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하위영역별 문제인 지도와 노후계획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4>와 같다. 경제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전체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식과 노후계획간에는 상관관계의 정도가 높지는 않으나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가사노동의 영역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사노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높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노후계획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들은 여생에 대한 기대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3. 노인의 생활문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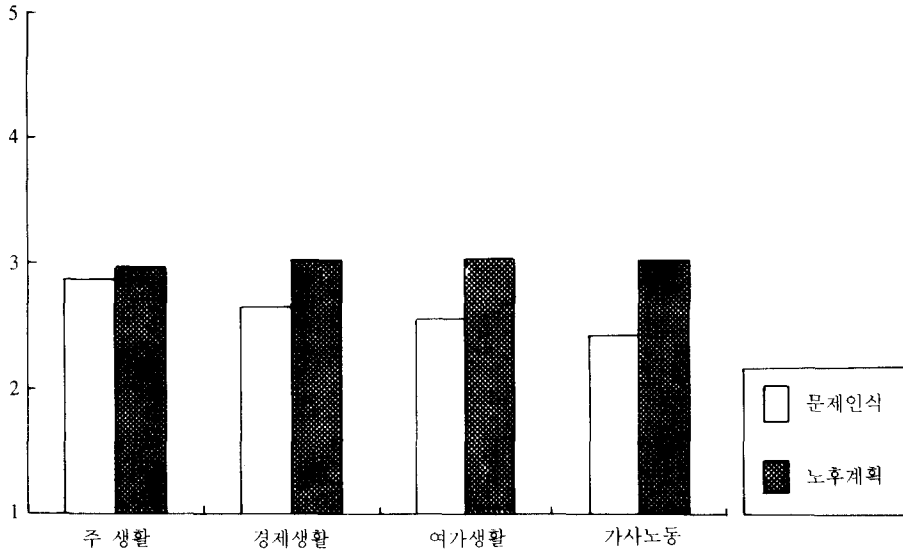
가정생활 하위영역에 대한 노인들의 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s)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2.4%이며, 영역별 문제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영역은 주생활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생활영역, 경제생활영역, 가사노동영역의 순이었다.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보다는 부부 모두 취

<표 3> 노인의 생활문제인지도 및 노후생활계획의 분포

변 수	하 위 영 역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생활문제 인지	주 생활문제	555	2.87	0.41
	경제생활문제	554	2.64	0.88
	여가생활문제	555	2.55	0.59
	가사노동문제	555	2.42	0.66
노후생활 계획	주 생활계획	551	2.96	1.11
	경제생활계획	551	3.02	1.07
	여가생활계획	551	3.03	1.03
	가사노동계획	550	3.02	1.04

생활문제인지 : 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노후생활계획 : 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그림 2〉 노인의 생활문제인지도 및 노후생활계획

〈표 4〉 노인의 생활문제인지와 노후생활계획간의 상관관계

(N = 556)

	주생활계획	경제생활계획	여가생활계획	가사노동계획	노후생활계획
주 생활 문제인지	-0.040	-0.145***	-0.175***	-0.123**	-0.137**
경제생활문제인지	-0.122**	-0.234***	-0.215***	-0.184***	-0.215***
여가생활문제인지	-0.165	-0.246***	-0.323***	-0.216***	-0.264***
가사노동문제인지	0.034	-0.038	-0.034	0.019	-0.000
생활문제인지	-0.096 *	-0.219**	-0.239***	-0.163***	-0.201***

* P < .05 ** P < .01 *** P < .001

업한 경우나 부부 중 한사람만이 취업한 경우,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총자산이 적을수록, 부부의 용돈이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하위영역별로 문제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생활 영역의 문제인지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부부 모두 은퇴한 경우에 비해 부부 모두 취업한 경우, 총자산이 적을수록, 부부의 용돈이 적을수록, 가족관계

가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주거영역에 대한 문제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영역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조사대상자가 여자인 경우, 부부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총소득과 총자산이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경제생활에 대한 문제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있어서는 부부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부부 모두 취업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취업한 경우,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총자산과 부부의

〈표 5〉노인의 생활문제인지에 대한 회귀분석

(N = 556)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활문제인지	주생활문제인지	경제생활문제인지	여가생활문제인지	가사노동문제인지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연령	-0.056***	-0.087***	-0.120***	-0.027	-0.151***	
	0.011	0.023	0.031	0.034	0.027	
성별	-0.107	-0.456	-1.068*	0.009	0.878*	
	0.163	0.339	0.460	0.505	0.405	
교육수준	-0.040*	-0.019	-0.098	-0.103	-0.081	
	0.019	0.040	0.054	0.059	0.048	
부부의 건강상태	-0.167*	0.101	-0.491*	-0.867***	-0.134	
	0.080	0.167	0.226	0.248	0.200	
종교	0.022	0.463	-0.192	-0.214	0.015	
	0.177	0.368	0.499	0.547	0.441	
부부무직상태	-0.468*	-0.920*	-0.125	-2.237**	-0.743	
	0.221	0.460	0.623	0.684	0.549	
부부중 1인 취업상태	1.400*	0.762	1.689	6.940***	2.355	
	0.633	1.317	1.784	1.959	1.572	
주택소유형태	0.029	-0.382	-0.178	0.088	0.739	
	0.184	0.383	0.519	0.570	0.458	
거주지역	0.318*	-0.487	1.595***	1.204*	-0.120	
	0.156	0.324	0.439	0.482	0.387	
월평균총소득	-1.671E-8	7.972E-8	-3.220E-7*	1.490E-7	5.963E-8	
	0.000	0.000	0.000	0.000	0.000	
총자산	-7.559E-10***	-1.537E-9***	-1.500E-7*	-1.361E-9*	-8.385E-10	
	0.000	0.000	0.000	0.000	0.000	
총부채	7.062E-10	-1.474E-9	3.272	1.737E-9	-4.897E-10	
	0.000	0.000	0.000	0.000	0.000	
부부의 용돈	-7.296E-8***	-9.385E-8**	-1.498E-7***	-1.850E-7***	-1.302E-7**	
	0.000	0.00033135	0.000	0.000	0.000	
가족관계 만족도	-0.161***	-0.350***	-0.273***	-0.348***	-0.252***	
	0.027	0.05716673	0.077	0.085	0.068	
자아존중감	-0.195***	-0.369***	-0.327***	-0.473***	-0.341***	
	0.035	0.07195108	0.097	0.107	0.086	
내외통제성	0.039	0.112	0.025	-0.065	0.196*	
	0.031	0.06421681	0.087	0.095	0.077	
INTERCEP	18.487	36.554	34.724	37.590	30.452	
F Value	15.873***	11.627***	9.125***	10.771***	8.566***	
R-square	0.3244	0.2602	0.2163	0.2457	0.2061	
Adj R-sq	0.3039	0.2378	0.1926	0.2229	0.1820	

* p < .05 ** p < .01 *** p < .001

용돈이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여가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er(1976)가 건강상태는 노년기 여가활동을 폭넓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것이나, 소득 및 용돈 등 경제적 요인이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최성재(1986), 이선미(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가사노동 영역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부부의 용돈이 적을수록,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인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인식하며, 또 남자노인의 경우 가사노동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여자노인에 비해 더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때 가사노동에서 인지하는 문제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결과에서 부부의 용돈,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은 모든 영역의 가정생활 문제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종교, 주택소유, 총부채는 가정생활의 어느 영역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들의 경우 자산이나 총소득보다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돈과 가족관계,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지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들의 경우 현재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 자원과 평생의 삶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친밀한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이 노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노후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부부의 건강상태, 종교, 부부의 취업상태, 주택소유, 주거

지역,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부부의 용돈,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지도 그리고 하위 영역별 문제인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OLS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노후생활계획을 종속변수로, 전체 및 영역별 생활문제인지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에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40.9%, 41.9%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한편 각 영역별 문제인지를 독립변수로, 영역별 노후계획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주생활영역의 설명력은 30.4%, 경제생활영역은 30.4%, 여가생활영역은 34.8%, 가사노동영역은 35.3%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노후계획에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용돈이 많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길고 은퇴와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을 여러 기회를 통해 교육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음으로써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후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인숙(1992)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노후대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나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계획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Mckenna(1988)의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서울이 아닌 기타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후계획정도가 높은 것은 노인들의 주 수입원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현과 이인수(1996)에 의하면 시지역의 노인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근로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28.0%에 불과하며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율이 50.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군지역의 노인들은 50.2%가 근로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보조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노인은 36.2%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녀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비해 노후계획의 정도가

〈표 6〉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회귀분석

(N = 556)

독립변수	종속변수	노후생활계획	노후생활계획	주생활계획	경제생활계획	여가생활계획	가사노동계획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Parameter Est. Standard error
연령	-0.105*** 0.020	-0.114*** 0.020	-0.034*** 0.006	-0.023*** 0.006	-0.021*** 0.006	-0.033*** 0.006	
성별	-0.078 0.286	0.071 0.284	0.009 0.092	-0.051 0.090	0.124 0.083	-0.038 0.083	
교육수준	0.118*** 0.033	0.119*** 0.033	0.032** 0.011	0.019 0.011	0.042*** 0.010	0.025** 0.010	
부부의 건강상태	0.015 0.141	0.078 0.140	-0.036 0.045	-0.013 0.044	0.046 0.041	0.047 0.041	
종교	-0.293 0.307	-0.232 0.308	-0.128 0.100	-0.042 0.097	-0.068 0.090	-0.012 0.090	
부부무직상태	0.151 0.386	0.173 0.385	0.046 0.125	0.098 0.121	0.082 0.113	-0.064 0.112	
부부중 1인 취업상태	0.058 1.103	-0.084 1.104	-0.281 0.357	-0.313 0.346	0.089 0.325	0.243 0.340	
주택소유형태	0.191 0.320	0.247 0.321	0.015 0.104	0.149 0.101	0.042 0.094	0.053 0.094	
거주지역	-0.694* 0.276	-0.787** 0.272	-0.151 0.088	-0.186* 0.086	-0.194* 0.080	-0.209** 0.079	
월평균총소득	-3.427E-8 0.000	-7.964E-9 0.000	1.759E-8 0.000	-1.661E-8 0.000	-9.259E-9 0.000	-7.006E-9 0.000	
총자산	5.284E-11 0.000	-5.942E-11 0.000	-3.265E-11 0.000	-1.438E-10 0.000	7.565E-11 0.000	8.424E-11 0.000	
총부채	2.436E-9 0.000	2.951E-9 0.000	1.258E-9 0.000	1.580E-9 0.000	5.155E-13 0.000	7.786E-11 0.000	
부부의용돈	5.659E-8* 0.000	6.206E-8* 0.000	1.546E-8 0.000	2.538E-8** 0.000	6.196E-9 0.000	1.352E-8 0.000	
가족관계 만족도	0.162** 0.050	0.168*** 0.049	0.035* 0.016	0.051*** 0.015	0.035* 0.014	0.048*** 0.014	
자아존중감	0.280*** 0.062	0.289*** 0.062	0.072*** 0.020	0.073*** 0.019	0.076*** 0.018	0.066*** 0.018	
내외통제성	0.133* 0.054	0.150** 0.054	0.040* 0.017	0.045** 0.017	0.026 0.016	0.032* 0.016	
생활문제 인지도		-0.038 0.076					
주생활문제 인지도	-0.023 0.039		0.018 0.012				
경제생활문제 인지도	-0.055 0.030			-0.019 * 0.008			
여가생활문제 인지도	-0.041 0.027				-0.023 ** 0.007		
가사노동문제 인지도	0.093* 0.036					0.011 0.009	
INTERCEP	11.639	11.020	3.14	2.797	2.571	2.627	
F Value	18.762***	21.394***	13.460***	13.473***	16.466***	16.787***	
R-square	0.4187	0.4092	0.3035	0.3038	0.3478	0.3530	
Adj R-sq	0.3964	0.3901	0.2810	0.2812	0.3266	0.3320	

* p < .05 ** p < .01 *** p < .001

낮은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인지도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노후계획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기타 도시인 경우, 부부의 용돈이 많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내적통제성이 강할수록 노후계획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노후계획을 하위영역별로 세분화하고 해당영역의 문제인지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생활 영역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경제생활의 경우는 연령, 거주지역, 부부의 용돈,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그리고 경제생활에 대한 문제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지역이 기타 도시인 경우, 부부의 용돈이 많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클수록, 그리고 경제생활에 대한 문제인지의 정도가 낮을수록 경제생활에 대한 노후계획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서 경제적 자원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김성숙 등(1992)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중년기와 노년기의 노후준비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생활에 대한 노후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인식이었다. 가사노동의 경우에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노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즉, 연령,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은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노후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나 성별, 부부의 건강상태, 종교, 부부의 취업상태, 주택소유형태,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등은 가정생활의 어느 영역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였다. 따라서 노후계획에는 노인들이 소유한 자산이나 건강상

태와 같은 자원보다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친밀한 가족관계, 그리고 남은 여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경제생활과 여가생활 영역에서는 문제인식의 정도가 낮고 연령이 적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부부의 용돈이 많으며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이 높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노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심리적으로 불행한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남은 여생이 길다고 생각하며, 가족관계나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그리고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내적통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앞으로의 미래 생활에 대해 준비하기 때문이며, 문제가 많고 자원이 적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남은 여생에 대한 기대와 자기부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여생에 대한 노후준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노인의 부양 및 노년기 생활의 질 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요소인 시간, 금전, 공간 및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도 이러한 네가지 생활요소에서 비롯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경제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의 문제로 발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이 경제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에 대해 인지하는 문제의 정도와 이러한 생활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후계획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인지는 주생활영역,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가사노동영역의 순서로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노후계획의 정도는 여가생활영역, 경제생활 및 가사노동, 주생활의 순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영역별 문제인지도와 노후계획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경제생활영역과 여가생활영역의 문제인지도와 노후계획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노인들이

문제를 많이 인지하는 영역에서 오히려 계획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후계획이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수립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스스로 연령이 너무 많다거나 여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해결책으로 노후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이나 대비를 위해 노후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제력이나 건강과 같은 자원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인들의 생활문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전체 가정생활문제 및 모든 영역의 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택소유, 총소득이나 총자산, 총부채 등 경제적 상태와 관련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심리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노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따라 생활문제의 인지 정도가 좌우될 수 있으며, 자녀의 부양의식이 약화된 최근에 와서는 노인 스스로가 노후부양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인연구에서 노년기의 경제력 약화와 상대적인 저소득 상태, 신체적 부양에 집중되었던 관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자신감 등의 심리적 준비에 대해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노후계획정도에도 문제인지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이 영향을 미쳤으며,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주택소유형태와 같은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노후계획을 노후를 위한 경제준비 위주로 생각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노년기의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손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에 대한 심리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이 전체 생활계획 및 여러 하위영역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노년기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

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는 경향이 있었던 결과를 볼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 노후계획의 필요성을 교육시키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는데 첫째, 노인의 생활문제란 오랜기간동안 누적 또는 장기화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종단적인 연구가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조사의 편의를 위해 횡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생활문제가 시간, 금전, 공간, 에너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생활문제 및 생활계획의 대상영역을 경제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가사노동영역으로 한정시켰다.

셋째, 노인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노년기가 시작되는 연령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노인의 가족형태, 취업상태, 경제력 등의 다양성을 위해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할 요구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노인의 생활문제가 생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설정하였으나, 연구결과에서 생활문제인지와 생활계획이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때 이들간의 동시적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적 측면에서 노년기에 있거나 노년기를 준비하는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부양을 지원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 등에 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와 계획의 유형 및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가정관리학분야에서 노인부양 및 노후의 경제계획에 집중되었던 연구 경향에 다양한 분야의 노인생활실태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노인연구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연구. 소비자학연구. 3(2). 45-57.
- 2) 김성순(1981). 노인복지학. 서울: 이우출판사.
- 3) 김성순(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김양희·이경희·노숙령·홍명숙·김진희(1995). 노인 가정생활 욕구조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가정문화논총. 9집.
- 5) 김인숙(1992). 농가의 노후의 경제적 요구와 대비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김종숙(1986).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7)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8)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9) 문숙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10)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6.
- 11) 민재성외(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12) 박재간·김태현(1986).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6. 27-40.
- 13) 박충선(1991). 저동불편 노인의 가족관계와 의식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71-83.
- 14) 범수인(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서병숙(1986).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6. 101-120.
- 16) 서병숙·김유정(1993).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80-92.
- 17) 성규탁(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노인의 비공식적 지원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1. 191-229.
- 18) 송정선(1997).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 여윤경(1992). 노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 윤가현(1991). 노년기의 고독감: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한국노년학 11(2). 179-189.
- 21) 윤현희·김명자(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적응감 연구. 한국노년학 14(1). 17-32.
- 22)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이연숙 외(1993).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서울: 경춘사.
- 24) 이선미(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5) 이선자·허정(1985). 한국노인의 보건실태조사. 한국노년학회지. 5. 103-124.
- 26) 이신숙·서병숙(1991). 농촌 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 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회지. 11. 191-211.
- 27) 임춘희(1987). 분가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8) 장인협·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29)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조사.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30)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서울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1) 채옥희(199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30.
- 32) 최정신(1991). 3세대 동거가족의 주요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3)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34) 홍숙자(1995).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35) 한국궤립조사연구소(1984). 전국 노인의 생활의 식구조. 서울: 한국궤립조사연구소.
- 36) 한국궤립조사연구소(1986).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궤립조사연구소.
- 37)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38) Atchley, R.(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3-17.
- 39) Brody, E. 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40) Cavanaugh, J. C.(1990).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41) Chatified, W.(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of Gerontology(32). 593-599.
- 42) Clark, M.(1972). Culture Values and Dependency in Later Life. Aging and Modernization. NY: Meredith Corporation. 263-274.
- 43) Dowd, J. J.(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 of Gerontology 30(5).
- 44) Deacon, R. E. & F. M. Firebaugh(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
- 45) Gallo, F(1984).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he health status. Social Work Research & Abstracts. 8(2). 13-19.
- 46) Golant, S. M. (1982). Individual differences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 of Social Issues. 38(3). 121-133.
- 47) Marlowe, J. & G. B. Sproles. Economics determinants of family development processes. J. of Consumer and Home Economics(10). 59-75.
- 49) Motenko, A. K.(1989). The frustration, gratifications, and well-being of 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9. 166-172.
- 50) Strieb, G. F. & R. W. Beck(1980).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205-224.
- 51) Varcoe, K. 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 of Consumer and Home Economics. 14. 57-69.